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번호

- 이 문제지는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월가에게 있습니다.
- 이 문제지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에 태양광 발전 패널의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네, 많이들 알고 계시네요. 지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은 날씨와 밤낮의 변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약 없이 24시간 내내 태양 에너지를 얻을 방법은 없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우주에 있습니다. 오늘은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우주 태양광 발전(SBSP)' 기술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우주 태양광 발전의 원리를 살펴볼까요? (㉠ 화면을 가리키며) 이 도식은 우주 태양광 발전의 3단계 메커니즘을 보여 줍니다. 먼저 고도 3만 6,000km의 정지 궤도에 띄운 거대한 태양광 패널 인공위성이 태양 에너지를 수집합니다. 우주에는 구름이나 대기가 없기 때문에 지상보다 최대 10배 높은 효율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생산된 직류 전기는 인체와 생태계에 무해한 주파수 대역의 마이크로파로 변환되어 무선으로 지구에 쏘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지상에 설치된 대형 수신 안테나인 '렉테나(Rectenna)'가 이 마이크로파를 받아 다시 전기로 변환하여 전력망에 공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 태양광 발전은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 화면을 전환하며) 이 그림은 특정 재난 지역에 전력이 공급되는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전파의 방향만 바꾸면 전 세계 어디든, 심지어 지진이나 태풍으로 지상 전력망이 파괴된 지역에도 신속하게 전력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 이 기술이 화석 연료에 의존해 온 인류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것이라고들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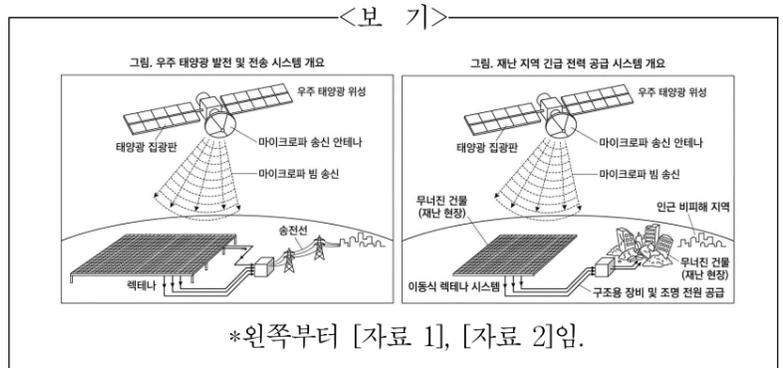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태양 전지판을 우주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발사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한, 우주 궤도를 떠도는 수많은 우주 쓰레기 파편들과 충돌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은 이 거대한 잠재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기술 개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일본은 당장 내년인 2026년에 세계 최초로 우주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구로 전송하는 실증 위성 '오히사마'를 발사할 계획입니다. 다가올 2026년이 인류가 우주에서 무한한 에너지를 수확하는 진정한 원년이 ㉣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밝혀줄지, ㉤ 다 함께 기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제와 관련된 논쟁적 사안을 제시한 후, 상반된 전문가의 입장을 대비하여 청중의 비판적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 ② 청중이 일상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기존 기술의 한계를 환기하는 질문을 던지며 발표의 화제로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다.
- ③ 발표에서 다룰 핵심 원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대기적으로 나열하여 기술이 발전해 온 역사적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발표 과정에서 예상되는 청중의 반론을 선제적으로 언급한 뒤, 구체적 통계를 들어 기술의 한계가 과장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 ⑤ 전문 용어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 청중이 겪었을 법한 구체적인 감각적 경험에 비유하여 내용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2. 다음은 발표자가 위 발표를 준비하며 수집한 자료 활용 계획이다. 발표 내용과 자료의 활용이 적절하게 대응되지 않은 것은?



- ① ㉠에 [자료 1]을 제시하여, 우주에서 수집한 태양 에너지가 어떠한 형태로 변환되어 지상의 전력망으로 연결되는지 그 단계적 원리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어야겠어.
- ② ㉠에 [자료 1]을 제시하여, 대기층의 간섭 없이 태양 에너지를 직접 수집하는 위성의 위치와 지상 수신 장비 간의 공간적 관계를 구조적으로 보여 주어야겠어.
- ③ ㉡에 [자료 2]를 제시하여, 무선 전송 방식을 통해 전력 공급의 방향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우주 태양광 발전 기술의 유연성을 부각해야겠어.
- ④ ㉡에 [자료 2]를 제시하여, 지상의 기존 전력 인프라가 파괴된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보여 주어야겠어.
- ⑤ ㉠에 [자료 1]을, ㉡에 [자료 2]를 제시하여, 우주 태양광 발전이 지상 태양광 발전보다 초기 건설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경제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해야겠어.

3. <보기>는 국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어휘 및 문법 요소를 통한 화자의 태도 표현’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 ㉡, ㉢에 쓰인 표현을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화자는 담화 상황에서 다양한 어휘와 문법 요소를 선택하여 정보에 대한 자신의 태도나 확신의 정도를 미묘하게 드러냅니다.

- 인용 표현과 접미사/조사: 타인의 견해를 빌려 옴으로써 객관성을 부여하며, 복수나 무리를 뜻하는 요소를 덧붙여 해당 의견이 지니는 보편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 보조 용언: ‘-아/어 보이다’ 등을 사용하여 자신의 판단이나 예측에 대해 단정 짓기를 피하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종결 표현: 의문형이나 청유형 어미를 완곡하게 사용하여, 청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인식의 변화나 행동을 부드럽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 ① ㉠에서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고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확신이 소수의 의견이 아니라 다수 전문가 사이에서 널리 공유되는 보편적 견해임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에서는 추측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 ‘-아/어 보이다’를 사용하여, 2026년이라는 특정 시점의 기술적 성취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는 화자의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③ ㉢에서는 의문형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우주 기술 발전이 인류의 일상을 긍정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자신의 확신을 철회하고 판단을 청중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있다.
- ④ ㉠와 ㉡에서는 모두 피동 접미사를 일관되게 활용하여, 행위의 주체를 의도적으로 숨김으로써 화자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 ⑤ ㉡와 ㉢에서는 모두 청유형 어미를 완곡하게 사용하여, 우주 태양광 발전에 소요되는 막대한 발사 비용 문제 해결에 청중이 물리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강제하고 있다.

[4~8] (가)는 교내 학생 자치 위원회에서 진행된 토론의 일부이고, (나)는 이를 참관한 학생이 교지에 실기 위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사회자: 최근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학교에서도 ‘교내 일과 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 및 소지를 전면 금지하는 학칙을 제정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입론해 주십시오.

찬성 1: 저희는 교실 내 스마트폰 사용 전면 금지 규칙 시행에 찬성합니다. 현재 수업 시간에도 무분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 본인의 학습권뿐만 아니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교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반발이 일어나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는 교권 침해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면 금지 규칙이 필요합니다.

사회자: 반대 측, 반대 신문 해 주십시오.

반대 2: 찬성 측은 스마트폰 전면 금지가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금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억압적인 통제는 오히려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나 화장실 등에서 몰래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만드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A]

찬성 1: 물론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다면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근거가 부족해져 매번 교실에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전면 금지 규칙은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사회자: 이어서 반대 측 입론해 주십시오.

반대 1: 저희는 스마트폰 전면 금지 규칙 신설에 반대합니다. 첫째, 이는 학생의 통신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입니다. 스마트폰은 단순한 오락 기기가 아니라 생활 안전 확인과 소통을 위한 필수 도구입니다. 둘째,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기를 법으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일률적인 금지라는 쉬운 길을 택하기보다, 학급 자치 협약을 통해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지키는 자율적 역량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사회자: 찬성 측, 반대 신문 해 주십시오.

찬성 1: 반대 측은 자율적 규약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교육이 내면화되어 실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매일 교실에서 발생하는 수업 방해와 무분별한 촬영 등의 즉각적인 피해는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반대 1: 즉각적인 제재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일과 중 전면 수거’와 같은 획일적 방식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수업 중 전원 끄기 등 학생 자치회에서 합의한 수준의 규약을 어겼을 때 벌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오히려 학생들의 책임감을 기르는 데 효과적입니다. [B]

(나)

[토론을 참관한 학생의 기고문 초고]

최근 국회에서 이른바 ‘교실 내 스마트폰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우리 학교에서도 스마트폰 사용 규정을 두고 뜨거운 논의가 진행되었다. 어제 열린 교내 토론 대회를 참관하며 나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분명, ① 수업 중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이 면학 분위기를 흐뜨리고 교사의 지도권을 위축시킨다는 찬성 측의 우려에는 십분 공감한다. 나 역시 수업 시간에 울리는 알림음 때문에 집중력을 잃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강압적인 일괄 수거 방식에는 반대한다.

강압적인 조치는 학생들의 반발심을 부추겨 음성적인 사용을 늘릴 뿐, ② 스마트폰 과의존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다. 기기 자체를 학교에서 몰아낸다고 해서 방과 후에 벌어지는 무절제한 사용이 마법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억압된 욕구는 학교 밖에서의 폭발적인 사용 증가로 이어질 뿐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통제’가 아니라 ‘교육’이다. ㉠ 단순히 사용을 막는 것을 넘어,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자제력을 배우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학교 현장에 내실 있게 자리 잡아야 한다. 이러한 교육적 기반 위에서, ㉡ 학생들 스스로 논의를 거쳐 납득할 수 있는 사용 규약을 제정해야 한다.

스마트폰이라는 양날의 검을 다루는 방법은 차단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통제력을 기르는 것이다. 학생과 교사가 대립하는 구도가 아니라, 올바른 디지털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적 관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4. (가)의 입론에 나타난 쟁점별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찬성 1은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타인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한다는 점을 전면 금지의 핵심 논거로 삼고 있다.
- ② 반대 1은 학생의 통신 자유 및 자기 결정권 등 인권 측면을 강조하여, 일률적인 스마트폰 전면 차단 규정에 반대하고 있다.
- ③ 찬성 1은 스마트폰 전면 금지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긍정적 효과로 내세우고 있다.
- ④ 반대 1은 기기를 원천 차단하기보다는 자치 규약을 통해 스스로 조절하는 방법을 익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⑤ 찬성 1과 반대 1은 모두 현재 교실 내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문제 상황의 존재 자체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

5. [A]와 [B]에 나타난 토론자들의 의사소통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반대 2’는 찬성 측이 주장하는 정책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일탈(풍선 효과)을 유발할 가능성을 묻고 있다.
- ② [A]에서 ‘찬성 1’은 상대측이 제기한 우려를 전면 부인하며,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면 모든 문제가 일시에 소멸될 것이라 확언하고 있다.
- ③ [B]에서 ‘찬성 1’은 상대측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며, 교육적 접근이 불가능한 생물학적 이유를 근거로 들고 있다.
- ④ [B]에서 ‘반대 1’은 상대측의 우려를 일축하며, 기존 방식의 유지가 가장 단기적인 효과가 크다고 답하고 있다.
- ⑤ [A]와 [B]에서 질문자는 모두 상대방이 인용한 통계 자료의 출처가 불분명함을 지적하며 신뢰성을 공격하고 있다.

6. (가)의 토론 내용이 (나)의 초고에 반영된 양상을 추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초고의 2문단은 토론에서 제기된 면학 분위기 저해 문제를 ㉠과 같이 수용하여, 필자가 찬성 측의 확실적인 수거 조치에 완전히 동의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 ② 초고의 3문단은 ‘반대 1’이 제기한 인권 침해 논리를 ㉡과 같이 수용하여, 학생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방과 후 사용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 ③ 초고의 4문단은 ‘찬성 1’이 강조한 학습권 보장의 시급성을 ㉢과 같이 수용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정규 교과목으로 신설해야 한다는 대안을 도출하고 있다.
- ④ 초고의 3문단은 ‘반대 2’가 반대 신문에서 지적한 억압적 통제의 역효과를 ㉣과 같이 수용하여, 강압적 금지가 오히려 음성적 사용을 늘린다는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⑤ 초고의 4문단은 ‘반대 1’이 제안한 자율적 합의 방식을 ㉤과 같이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학생 자치회가 아닌 교사 주도의 엄격한 처벌 규약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 (나)에 반영된 필자의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제와 관련된 최근의 법률 통과 소식을 언급하며 글을 시작하여, 논의의 시의성을 부각한다.
- ② 자신의 일상적인 경험을 구체적으로 환기하여, 찬성 측이 제기한 우려 사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 ③ 타국의 유사한 법제화 실패 사례를 비판적으로 인용하여, 확실적 통제가 지닌 한계를 단계적으로 입증한다.
- ④ 일방적인 차단과 교육적 접근 사이의 대비를 이끌어내어, 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⑤ 글의 마무리에서 학생과 교사를 대립이 아닌 협력적 관계로 설정하여, 올바른 디지털 문화 조성을 추구한다.

8. 다음은 (나)를 쓴 학생이 교지 편집부장에게 받은 피드백의 일부이다. 피드백을 반영하여 초고의 5문단을 대체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글의 마무리가 너무 평이해. 주제를 인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올바른 태도를 ‘항해’나 ‘바다’에 비유하는 표현을 추가하고, 학교 공동체 모두의 협력적인 노력과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5문단을 고쳐 써 보자.

- ① 스마트폰은 교실에 침입한 해적과 같아서 단호히 물리쳐야 한다. 교사들은 강력한 규정을 마련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부모는 가정에서 엄격한 지도를 병행해야 한다.
- ② 거친 디지털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서는 기기를 금지하는 장벽을 쌓기보다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튼튼한 돛을 달아야 한다.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자율적인 규칙을 만들어 올바른 디지털 항해를 함께 시작하자.
- ③ 바다를 건너려면 배가 필요하듯, 우리에게는 스마트폰이라는 편리한 도구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무선 인터넷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확충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 ④ 몰래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배 밑바닥에 난 구멍과 같아서 결국 학교라는 배를 침몰시킨다. 학교 공동체는 즉각적인 처벌 수위를 높여 소수의 일탈 행위가 다수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 ⑤ 학생과 교사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아서 한쪽만 움직여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따라서 학교 측은 강압적인 조치를 철회하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때까지 개입을 멈추고 기다려 주어야 한다.

[9~11] 다음은 교지에 실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정보 전달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최근 식품 산업의 최대 화두로 ‘푸드 업사이클링(Food Upcycling)’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식품의 생산이나 가공 과정에서 버려지는 부산물이나 상품 가치가 떨어진 식재료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 친환경 식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유엔환경계획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약 3분의 1이 버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있다. 푸드 업사이클링은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주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맥주박’의 활용이다. 맥주를 짜내고 남은 보리 찌꺼기인 맥주박은 단백질과 식이 섬유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보관이 어려워 대부분 폐기되거나 가축의 사료로 쓰였다. 하지만 최근 푸드테크 기업들은 이를 가공하여 영양가 높은 밀가루 대체재나 에너지 바, 스낵 등으로 상품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영양가 높은 새로운 식품을 시장에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못난이 농산물’의 변신도 눈에 띈다. 맛과 영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크기가 작거나 흠집이 나서 유

통되지 못하는 과일과 채소를 활용해 과일 주스, 잼, 반려동물 간식 등을 제조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가격 경쟁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최근 환경 가치를 중시하는 ‘가치 소비’ 트렌드와 맞물려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푸드 업사이클링 시장은 2026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성장하여 향후 거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산업이 우리 식탁의 주류로 확고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먼저 폐기물을 재활용했다는 사실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심리적 거부감과 위생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또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부산물들을 수거하고 위생적으로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 및 공정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체계적인 기술적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A]

9. 위 초고에 활용된 글쓰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존 산업 구조가 유발하는 환경적 문제점들을 수치화된 통계와 함께 지적하여 새로운 대안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있다.
- ② 특정 현상의 기원을 역사적 관점에서 통시적으로 분석하여 푸드 업사이클링 산업의 장기적인 미래 변화 방향을 유추하고 있다.
- ③ 핵심 개념을 정의한 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활용 사례를 나열하고 있다.
- ④ 푸드 업사이클링 산업이 지닌 장점들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효용성을 입증하고 있다.
- ⑤ 해당 산업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위해 극복해야 할 한계점을 지적하며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8. 다음은 초고의 제목을 작성하기 위해 설정한 편집 조건이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글의 핵심 소재가 직접 포함될 것.
- 환경 오염이라는 기존 문제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해결책으로서의 속성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드러날 것.
- 독자들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는 의문문 형식으로 구성할 것.

- ① 푸드 업사이클링, 막대한 식량 낭비와 온실가스를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을까?
- ② 기후 위기를 구하는 구명조끼 푸드 업사이클링, 지속 가능한 식탁으로 바뀌 보지 않겠습니까?
- ③ 버려진 식재료의 마법사 푸드 업사이클링, 맛과 영양을 모두 완벽하게 잡은 비결은 무엇인가?
- ④ 환경 오염의 한계에 부딪힌 지구, 푸드 업사이클링 기술이 진정한 대안이 될 것인가?
- ⑤ 푸드 업사이클링 시장의 눈부신 폭발적 성장세, 2030년 이후 우리의 밥상은 어떻게 변할까?

11. <보기>는 필자가 초고의 [A]를 완성하고 본문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통계 자료: 글로벌 푸드 업사이클링 시장 규모 전망
 - 2025년: 668억 달러
 - 2026년: 707억 달러
 - 2035년: 1,253억 달러

(나) 전문가 인터뷰
 “푸드 업사이클링 제품이 성공하려면 ‘친환경’이라는 명분에만 기대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맛’이 있어야 하며, 원료 수거부터 가공까지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위생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업사이클 식품 공식 인증 마크 제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신문 기사
 정부는 푸드 업사이클링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별 연구 지원 센터를 착공했다. 이 센터는 식품 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자원화 연구를 주도하고,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제품 생산 인프라와 물류망을 공동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① (가)를 활용하여, 2026년을 기점으로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여 2035년에는 1,253억 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이라는 4문단의 거시적 전망에 객관적인 수치 근거를 제공한다.
- ② (나)를 활용하여, 친환경적 명분 외에도 맛의 경쟁력 확보와 공정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점을 4문단에서 언급한 ‘소비자들의 심리적 우려’를 불식시킬 구체적 방안으로 추가한다.
- ③ (다)를 활용하여, 부산물 수거 및 공정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기술적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4문단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 지원 사례로 보강한다.
- ④ (가)와 (나)를 종합하여, 글로벌 시장 규모의 지속적인 성장은 업사이클 식품 인증 마크 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기업의 자율적 맛 경쟁에만 집중한 결과로 발생한 필연적 인과 관계임을 5문단에 제시한다.
- ⑤ (나)와 (다)를 종합하여, 소비자의 심리적 우려를 씻기 위한 투명한 인증 제도 도입과, 물류 및 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산업이 주류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5문단의 최종 결론으로 덧붙인다.

[12~15] (가)와 (나)는 학생이 읽은 글이고, (다)는 이를 바탕으로 쓴 논증하는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인공지능(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소설, 그림, 음악 등 이른바 ‘AI 창작물’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AI의 결과물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하다. 대다수 국가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

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는 ㉠ ‘인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개입 없이 AI 알고리즘이 독자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원칙이다. 실제로 일부 국가의 저작권청은 AI가 프롬프트 즉, 명령어만으로 자율적으로 생성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AI를 벗어나 악기와 같은 ‘창작의 도구’로 보아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사용자가 정교한 프롬프트를 끊임없이 수정하여 AI를 통제하거나, 생성된 여러 결과물 중 특정 요소를 선별하고 창의적으로 재배열 및 편집하는 과정에는 분명히 인간의 정신적 노력과 기여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명확히 입증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저작권을 부여하여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
 AI 창작물의 보호 여부 못지않게,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도 핵심 쟁점이다. 대규모 언어 모델(LLM) 구축을 위해서는 수억 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학습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AI 산업계는 기술 혁신을 가로막지 않기 위해 이러한 데이터 수집을 ㉢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이나 ㉣ ‘공정 이용’의 범주로 폭넓게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공정 이용이란 상업적 목적이 아니거나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적 원칙이다.

반면, 창작자들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이들은 상업적 AI 모델이 원작자의 화풍이나 문체를 정교하게 모방한 대체재를 대량 생산함으로써 기존 창작 시장을 심각하게 잠식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한다. 이에 따라 창작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거부할 수 있는 ㉤ ‘옵트아웃(Opt-out)’ 제도의 법제화와, 학습 데이터 활용에 대한 투명한 보상 체계 마련을 강력히 추구하고 있다.

(다)
 최근 국내 생성형 AI 스타트업들이 학습 데이터 무단 수집 논란으로 연이은 소송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현행 저작권법의 엄격한 잣대 앞에서는 AI 모델 개발 자체가 불법이 될 위험이 크다. 나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창작자와 상생하기 위해, 조속히 저작권법에 ‘TDM 면책 조항’을 신설하고 옵트아웃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근거로 우선, 데이터 수집에 대한 사전 동의, 곧 ‘옵트인(Opt-in)’ 방식만을 고수한다면 국내 AI 산업의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수백억 건의 텍스트가 필요하다. 만약 모든 데이터의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허락을 구해야 한다면, 막대한 자본과 시간적 비용이 발생하여 국내 AI 스타트업들은 연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막강한 자금력을 지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시장을 완전히 내어주게 될 것이다.

또한, AI의 데이터 학습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의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크다. AI는 저작물의 표현 자체를 대중에게 그대로 복제해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의 구조와 패턴

을 수학적으로 분석할 뿐이다. 이는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직접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 창작물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A]

결론적으로, 기술 혁신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외면한 채 낡은 규제에 얽매어서는 안 된다. TDM 면책 조항과 옵트아웃 제도의 결합은 AI 강국으로 도약하면서도 인간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다.

12. 다음은 학생이 글을 읽는 과정에서 작성한 질문이다. (가)와 (나)에서 답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 ① (가)와 관련하여, 대다수 국가의 저작권법이 ㉠을 채택함에 따라 AI의 독자적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거부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 ② (가)와 관련하여, ㉡의 기준이 충분히 충족되어 인간의 개입이 예외적으로 인정된 대표적인 최근 법원 판례는 무엇일까?
- ③ (나)와 관련하여, AI 산업계가 대규모 데이터 수집 행위의 적법성을 주장하기 위해 내세우는 ㉢과 ㉣은 각각 어떤 개념일까?
- ④ (나)와 관련하여, 창작자들이 상업적 AI 모델의 학습을 ㉤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 ⑤ (나)와 관련하여, 창작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과 함께 촉구하고 있는 정책적 대안은 무엇일까?

13. (다)를 작성하기 위해 (가), (나)를 읽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 ㉠에 주목하여, AI 기술 발전에 맞춰 인간의 권리를 축소하고 기계의 독자적 저작권을 전면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의 1문단에 반영하였다.
- ② (가)에서 ㉡에 주목하여,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는 산출물에 대해서도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저작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의 2문단에 반영하였다.
- ③ (나)에서 ㉢의 한계에 주목하여,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기업이 데이터를 사전에 반드시 허락받는 사전 동의(Opt-in) 제도로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는 대안을 (다)의 3문단에 적용하였다.
- ④ (나)에서 AI 산업계가 제기하는 현실적 어려움에 주목하여, 사전 동의를 강제할 경우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이 국내 AI 산업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점을 (다)의 2문단에 근거로 활용하였다.
- ⑤ (나)에서 창작자들의 주장에 주목하여, AI 학습이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를 훼손하므로 ㉤에 결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의 3문단에 근거로 활용하였다.

14. <보기>를 참고할 때, (다)를 작성하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논증은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입증하는 과정이다. 논증 요소는 주장과 왜 그러한 주장을 하는지에 관한 주관적 생각인 이유, 주장이나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인 근거, 예상되는 반론과 이에 대한 반박 등이 있다.

- ① 1문단: 글로벌 AI 경쟁력 확보와 창작자와의 상생을 위해 TDM 면책 조항 신설과 옵트아웃 제도의 법제화가 조속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된 주장으로 제시한다.
- ② 2문단: 수백억 건의 텍스트에 대해 일일이 사전 동의를 받는 방식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현행 체제에서는 국내 AI 산업의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이유로 제시한다.
- ③ 2문단: 사전 동의 방식을 고수할 경우 국내 AI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시장을 완전히 내어주게 될 것이라는 점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진출을 강력히 규제해야 하는 타당한 근거로 제시한다.
- ④ 3문단: AI의 데이터 학습이 저작물의 표현 자체를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패턴을 수학적으로 분석할 뿐이므로 시장 수요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공정 이용에 부합한다는 근거로 제시한다.
- ⑤ 5문단: 기술 혁신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수용하면서 인간 창작자의 권리도 존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충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15. <보기>는 (다)를 작성한 후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보기>를 (가), (나)와 연결 지어 (다)의 [A]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최근 일부 생성형 AI 모델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된 유명 작가의 소설이나 이미지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재현해 내는 이른바 ‘암기(Memorization) 현상’이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이는 원본과 완벽히 동일한 결과물을 생성하여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 한편, 옵트아웃 방식은 수많은 AI 기업의 무작위적인 데이터 수집 로봇을 상대로 창작자가 일일이 자신의 저작물 수집을 거부하는 복잡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시간적·경제적 여력이 없는 개인 창작자에게 부당한 방어 책임을 전가한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원본 재현 방지 필터링 의무화와 정부 차원의 통합 옵트아웃 등록 플랫폼 구축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 ① <보기>를 (가)와 연결 지어, AI의 암기 현상이 원저작물을 대체한다는 점을 예상 반론으로 설정하고, TDM 면책 조항의 대상을 영리성이 배제된 학술 연구로만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으

로 반박을 구체화해야겠어.

- ② <보기>를 (나)와 연결 지어, 유프아웃 제도가 창작자에게 부당한 책임을 전가한다는 점을 예상 반론으로 설정하고, 유프아웃을 전면 폐지하고 기업이 예외 없이 유프인을 받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반박을 구체화해야겠어.
- ③ <보기>를 (나)와 연결 지어, 압기 현상에 따른 시장 대체 우려와 유프아웃 제도의 한계를 예상 반론으로 제기하고, 원본 재현 방지 필터링 의무 부과와 통합 유프아웃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이러한 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반박을 구체화해야겠어.
- ④ <보기>를 (가), (나)와 연결 지어, 압기 현상으로 인한 경제적 침해와 유프아웃의 기술적 부담을 예상 반론으로 제기하고, 국가 경쟁력 보호를 위해 시장의 혼란을 유발하는 창작자의 저작권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는 내용으로 반박을 구체화해야겠어.
- ⑤ <보기>를 (나)와 연결 지어, AI가 원본과 동일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것은 데이터 분석의 본질적 한계임을 예상 반론으로 제시하고, 어떤 경우에도 정책 딜레마 해소가 우선하므로 창작자는 기술 혁신을 위해 시장 가치 훼손을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반박을 구체화해야겠어.

[16~19] (가)와 (나)는 학생이 읽은 글이고, (다)는 이를 바탕으로 쓴 논증하는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경제학에서 시장은 가격 기구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만, 때로는 경제 주체의 활동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채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외부효과'라고 한다. 어떤 활동이 제3자에게 혜택을 주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현상을 '긍정적 외부효과'라 하고, 반대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면서도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현상을 '부정적 외부효과'라 한다.

시장 논리에만 맡겨두면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재화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고,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재화는 과다하게 생산되는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이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나 정책 입안자는 외부효과를 시장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내부화 전략을 사용한다. 긍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주체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제 혜택을 주어 생산을 장려하고, 부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주체에게는 환경 부담금이나 조세를 부과하여 사회적 비용을 생산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한편, 최근에는 기업 스스로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선제적으로 부담하겠다고 선언하며 부정적 외부효과를 자발적으로 내부화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나)

과거의 지역 정책에서 갈등은 주로 혐오 시설의 입지를 거부하는 '님비' 현상이나 수익성 높은 시설을 유치하려는 '핍피' 현상으로 뚜렷이 나뉘었다. 그러나 첨단 산업 시대에 접어들면서, 대규

모 첨단 산업 시설 하나를 두고 유치를 희망하는 여론과 자원 고갈을 우려하는 반대 여론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 딜레마 양상이 빈번해지고 있다. 첨단 시설이 양질의 일자리와 막대한 세수를 보장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전력과 수자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지역 생태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합 딜레마는 단순히 예측 가능한 정보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첨단 시설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의 규모와 소비할 자원의 양이 수치로 명확히 예측된다 하더라도 의사결정은 여전히 어렵다. 왜냐하면 이는 '지역 경제의 도약'이라는 가치와 '생태적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치의 우선순위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정책 딜레마 상황에서는, 상충하는 두 가치 중 어느 하나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기보다는 첨단 기술이나 새로운 제도적 틀을 통해 두 가치의 공존을 모색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다)

최근 우리 지역에 하이퍼스케일 인공지능(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문제를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나는 우리 지역이 AI 데이터센터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지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우선, AI 데이터센터 유치는 우리 지역에 강력한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한다.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 막대한 지방세 수입이 발생할 뿐 아니라, 관련 IT 기업들의 연쇄적인 입주를 유도하여 고급 일자리를 창출한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1기 구축 시 연관 산업에서 발생하는 생산 유발 효과는 막대하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신재생 에너지를 데이터센터에 직접 공급하는 '지산지소', 즉 지역 생산-지역 소비 모델이 구축되면 지역 에너지 산업도 획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물론, 반대 측의 우려도 타당한 면이 있다. AI 데이터센터가 막대한 전력과 냉각용수를 소비하여 지역 사회에 심각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거대 데이터센터는 가동 정점일 때 하루에 소도시 전체가 사

[A]

용하는 양과 맞먹는 물을 증발시키며 수자원 고갈을 가속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원 소비 문제는 기술적 혁신과 기업의 자발적 내부화를 통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최근 데이터센터 기업들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액침 냉각 기술과 폐쇄형 수자원 재활용 시스템을 도입하여 물과 전력의 외부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다. 아울러 기업이 자체 비용으로 지역 전력망을 확충하고 상수도 인프라 개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B]

16. 다음은 학생이 (가)와 (나)를 읽는 과정에서 작성한 질문이다. 글에서 답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 ① (가): 긍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재화가 시장에서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정책을 사용하는가?
- ② (가):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내부화를 실천할 때, 정부가 이들에게 제공하는 법적 면책 조항의 기준은 무엇인가?
- ③ (나): 과거의 지역 정책 갈등 양상과 비교할 때, 최근 대규모 첨단 산업 시설 입지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복합 딜레마 현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 ④ (나): 정책 딜레마 상황에서 경제적 이익과 자원 소비량에 대한 객관적 예측 정보가 충분히 주어지더라도 의사 결정이 곤란한 이유는 무엇인가?
- ⑤ (나): 상충하는 두 가치의 우선순위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정책 딜레마 상황에서, 정책 입안자에게 요구되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의 방향은 무엇인가?

17. (다)를 작성하기 위해 (가)와 (나)를 읽고 연계한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 부정적 외부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정부의 내부화 규제 방식을 활용하여, (다)의 4문단에서 AI 데이터센터 유치 시 지역 전력망 확충 비용을 정부가 세금으로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 ② (가)에서 외부효과가 시장 실패를 초래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의 2문단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는 지산지소 모델이 시장 논리를 배제하고 중앙 정부의 통제 하에 자원을 배분하는 전략임을 강조하였다.
- ③ (나)에서 대규모 첨단 산업 시설이 유발하는 복합 딜레마 상황을 활용하여, (다)의 3문단에서 AI 데이터센터가 막대한 자원을 소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님비 현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 ④ (나)에서 상충하는 두 가치의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해결 방향을 수용하여, (다)의 4문단에서 데이터센터의 자원 소비 문제를 기술 혁신과 자발적 내부화로 통제함으로써 경제적 도약과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 ⑤ (나)에서 정책 딜레마 상황은 정보의 부족에서 기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하여, (다)의 3문단에서 수자원 고갈을 우려하는 반대 측의 주장이 불확실한 예측 정보에 근거한 비합리적 비판임을 입증하였다.

18. <보기>를 참고하여 (다)의 논증 계획 및 구조를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논증하는 글을 비판적으로 읽고 쓸 때는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타당성: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유 간의 논리적 연결이 합리적인가?
- 신뢰성: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가 객관적이고 출처가 명확한가?
- 공정성: 자신의 주장과 상반되는 반론을 편견 없이 다루고, 쟁점의 균형을 유지하며 이를 재반박했는가?

- ① 데이터센터 유치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의 통계를 인용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불리한 수치를 누락하였으므로 신뢰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군.
- ② 데이터센터가 막대한 전력과 냉각용수를 소비하여 수자원 고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반대 측의 우려를 예상 반론으로 제시한 것은 자신의 주장과 상반되는 관점을 배제한 것이므로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군.
- ③ 지역 경제의 위기 극복과 첨단 산업 중심지 도약이라는 이유를 들어 데이터센터 유치 주장을 전개한 것은,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주장과 이유 간의 논리적 연결이 결여되었으므로 타당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군.
- ④ 데이터센터 유치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감정적 호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반론 자체를 무력화한 것은, 쟁점의 균형을 무너뜨린 것이므로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군.
- ⑤ 반대 측의 우려에 대해 기술적 혁신과 기업의 자발적 내부화를 통해 자원 소비 문제를 통제할 수 있다고 재반박한 것은, 예상 반론을 논리적으로 극복하며 주장의 합리성을 강화한 것이므로 타당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군.

19. <보기>는 (다)를 작성한 후 결론을 보완하기 위해 필자가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보기>를 (가), (나)와 연결 지어 (다)의 [B]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센터의 수자원 고갈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워터 포지티브(Water Positive)’ 목표를 선언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데이터센터 운영에 사용한 물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지역 사회나 자연 생태계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이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하수 처리수를 정화하여 냉각수로 재사용하는 기술에 투자하거나, 지역의 메마른 하천을 복원하는 생태 프로젝트에 직접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혁신적 상생 모델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데이터센터는 수자원 소모 시설에서 지역 생태계 회복의 기여자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평가한다.

- ① <보기>를 (가)와 연결 지어, 부정적 외부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에게 워터 포지티브 달성을 의무화하는 강력한 조세를 부과해야만 비로소 시장 실패를 교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B]를 작성해야겠어.
- ② <보기>를 (가), (나)와 연결 지어, 기업의 워터 포지티브 선언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자발적으로 내부화하는 것을 넘어 긍정적 외부효과까지 창출하는 사례이므로, 기술과 상생이 결합된 이러한 유치 모델이 경제와 환경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합리적 선택임을 강조하며 [B]를 작성해야겠어.
- ③ <보기>를 (나)와 연결 지어, 복합 딜레마 상황에서는 가치 충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일정 부분 포기하더라도 기업이 하천 복원 자금을 제공한다면 경제적 이익이라는 단일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B]를 작성해야겠어.
- ④ <보기>를 (나)와 연결 지어, 데이터센터 유치 시 소모되는 수자원의 정확한 수치를 워터 포지티브 지표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절차적 합리성을 거쳐야만, 예측 불가능한 정보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반대 여론을 종식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B]를 작성해야겠어.
- ⑤ <보기>를 (가), (나)와 연결 지어, 워터 포지티브와 같은 자발적 내부화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만이 실현할 수 있으므로, 복합 딜레마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데이터센터 유치를 전면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B]를 작성해야겠어.